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價 壹部(朝夕刊)金五錢 壹箇月金貳圓 參箇月先金五圓七拾五錢 六箇月先金 (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活字壹行金壹圓 四號活字壹行金壹圓九拾錢 特別指定料五號活字壹行 參拾錢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崔[illegible]
發行所 京城水標町四三 朝鮮日報社

社說

注目할中國國民黨의態度

一

一千九百十一年以後에잇서서 中國革命 또는그以前에잇서서 中國革命을爲하야 始終一貫한態度로써 奮鬪努力하여오기는 故孫文氏와 또그를中心으로한國民黨인것은 누구나다認定하는바이다 中國革命後에잇서서 國民黨이 一時黨으로써 勢力을잡기는 恒常的이엿섯고 그다음에는 軍閥의手中에 政權이弄絡되엿섯다 그리하엿스나 孫文氏는 그標榜한三民主義를 高히압헤켜들고 멀리廣東의一隅에잇서서 千辛萬苦를격그면서 主義를爲하야 奮鬪하기를 쉬지안코 繼續하고잇섯다

二

그동안에 中國의軍閥은 分解作用을하기 始作하엿다 그리하야 一般國民의利益을考慮하지아니하고 利慾을채우기爲하야 武力으로中國을統一하려하던 袁世凱가帝位에올으려고하던 無謀의行動은 失敗되고말앗다 그리고또다시 張勳의復辟運動은 長提할必要도업는바어니와 段祺瑞의計劃으로하던지 吳佩孚의計劃으로하던지 모든것이 다失敗하고말엇다 最近에와서 張作霖이 國內에蟄伏하게되엿스나 一部下의不平이 不可侮의形勢에잇서 亦是자조下野를聲明하지아니하면 아니될處地에잇고 北京에잇서서 虛位는擁하엿스나마 段政府도 下野를傳하게되고 또執政의뒤를이어 中央政府의權力을 收攬할許世英의內閣이 畸形兒的形態를가지고잇고 吳佩孚 멀리 江邊에잇서서 國會를엿보는바 잇스나 다시 舊時의勢力을 恢復할수업는形便에잇다

三

이와가티되여 前者에本欄에잇서서 指摘한바잇슴과가티中國에잇서서는 現在에統治群의大混亂을呈하게되엿다 이때는 國民黨이 또한번活動하게되엿다 中國民은統治者에對한飢渴을 늣기게되엿다 果然이때에 廣東에本據를둔國民黨은活動하게되엿다 그리하야 新年勞頭에 廣東에召集된 國民黨의全國代表會議에서는 勞農露西亞와提携하야 帝國主義를倒壞하자는決議를行하야 사람으로하여금 果然廣東政府의態度에對하야 疑惑의念을抱持케한바잇섯다 이會議에는香港八日電의報道한바에依하면 全國으로부터 代表者總計百八十九名이出席되엿고 議長에는 廣東國民政府主席委員되는汪精衛氏가被選되엿섯다한다 또同會議에서는 被壓迫國民과 協力할事를 決議하엿다 그리하고또 日本의滿洲出兵에對하야 抗議할事도 決議하엿다 이와가티하야 國民黨의廣東政府는 새旗幟下에 一般兵衆에게 激한바잇다

四

日本에잇서서는 勞働黨이成立되엿다가 곳解散되고 지금 또다시無產政黨을組織하자는소리가 돕하오는다 그러나 새로 成立될日本의無產政黨은 아조去勢되여 매우穩和한政黨이될터인즉 그것이東洋政局에 波及할影響은 매우적을것으로보지아니하면 아니될것이다 그러나 現今中國에잇서서는 一大飛躍을 試할만한機運을當하엿다고 보지아니할수업다 그러한데에 中國國民黨의前記의 決議를보게된것은 新年의重大 事件으로 아니볼수업는바이다 中國에잇서서는지금 進步的政綱을가진 有力한政黨이 大活躍할그때이다 果然中國國民黨은 中國民의解放과其他理想을 助成할만한氣力이잇슬가?우리는 그의前途에對하야 多大한疑懼를가지면서도 그가今番의態度를取하게됨에對하여는 一時別히注目不怠하려한다

張氏獨立宣言은 軍費의補充이主因

(東京電) 奉天方面으로부터의情報를綜合하면今回張作霖이東三省獨立을企圖한것은主로王永江等의主張에依한것인데如斯히하야同省産業의開發에努力을傾倒하고保境安民을主로하야서滿洲의經濟的充實을計한後今番戰爭에消耗된軍費를補充하라함이라더라

司法調查會開幕 議長은米全權「스」氏

(北京十二日發) 司法制度調查會議開會式은十二日午前十一時에擧行되야米國全權「스」트룬氏가議長으로選擧되엿다더라

佛國政界險惡 聯合派分子가 「부」總理反對運動開始

(巴里十一日發) 佛蘭西國會는再開劈頭에聯合派分子가「색리안」總理에게對한反對運動을始하엿슴으로同氏의內閣도支持困難의兆가잇다더라

늬구레襲擊事件 眞相調查報告를命令 ◇……米國務省에서

(華盛頓十一日發) 米國務省은墨西哥「늬구레」停車場에서匪徒에게殺害當한者中米人이잇다는것을聞하고「카다루야라」駐在米國領事에게그眞相報告를命하엿다더라

本黨硬化說과 政府의對策研究閣議

(東京電) 十二日定例閣議에서 宇垣陸相은 滿洲派兵撤還狀況을報告하고十九日外지는 全部完了하리라는旨를 述하얏스며幣原外相은 關稅法權兩會議其他中國現下의 時局에對한報告를하고仙石鐵相으로부터는鐵道建設計劃에變更을加한該提案을報告하야審議한結果此를承認한後政局問題를協議하야本黨硬化說이有하얏스나態度가어더外지反政府的이라고即斷할必要가無하야政府는誠意로써政策의一致點을發見하기에努力하야政局의圓滿遂行을期하며萬一의境遇에處하기爲하야萬般遺憾이無하기를期한다는意가一致되얏다더라

衆院各派陣容

(東京電) 議會續會를目睫에두고政機漸次切迫함으로朝野各派는對策을講究하기에奔走中인데十一日政憲兩派는最高幹部會를同交會는在京代議士會를開催하고對議會策에遺算이업기를期하야政界는緊張의極에達하라고한다即政友會는十一日午後一時靑山의田中總裁邸에最高幹部會를開하고總裁를爲始하야望月、武藤、山本、岩崎、東其他가出席하야對議會策及對本黨對同交會關係에就한意見을交換한結果偵察을正確히하야周到한策을講하야在野黨으로서自主獨立으로政府에肉迫하야一大開戰을期하기로하고同四時散會、憲政會는午後二時本部에幹部會를開하고箕浦、町田、原、齋藤其他가出席하야對議會策特히對本黨策에對하야協議하야本黨의態度如何에依하야는무엇이던지할決心을堅固히하고二十日의그大會에對한宣言決議는町田總務에一任하야政府와妥協하고議事進行에對하야는更히各派交涉會를開하야解決하기로하고同四時散會하고同交會는午後一時中央「호텔」에代議士會를開하고十九日의發會式其他에對하야協議한다더라

失敬問題로 警視總監이 首相과會見

(東京電) 太田警視總監은十二日午前十一時半에互하야首相官邸로首相을訪問하고「색리칠」大使問題에對하야警視總監으로서辯明을할바를協議한바잇섯더라

赤坂區會代表 外務省訪問

(東京電) 「색」大使事件으로 大使「쉴버-」夫妻의失敬事件에憤起한赤坂區會代表渡邊直吉、天野上太郞、栗原彥三郞外一名외四氏는十二日午前十一時五十分에外務省으로若杉情報部第二課長을訪問하고區會의決議文을手交後口頭로서本事件는不確實로서는些小한것이라할지라도其性質은日本帝國의威信에關한重大問題임으로斷乎한態度에出키를望한다는旨를要述하엿는데此에對하야若杉課長은來意를諒承하엿더라

東滿靑年聯盟 間島靑年의發起準備

間島에居留하는靑年들은聯盟의組織이無하야意思統一과文化向上에對하야크게遺憾으로생각하야下記諸氏의發起로東滿靑年聯盟을準備中이라더라

一、東滿靑年聯盟會發起會準備人
朴載廈 金鳳翼 呂南濤 李麟求 鄭眞燮 全鵬洛 李秉錫、沈相玩 李東勳 李周和 金爽浩 申一默 金圭復 金順九 金秉光 趙昌鍵 朴斗煥 李鉉俊 金鼎郁
一、發起會期日은一月廿五日午後四時 (間島)

榮奉運動者同盟 去七日創立

慶北榮州奉化兩郡에서各方面으로活動하는運動者二十餘名이去七日奉北靑年會館에懇親會를開하고榮奉運動者同盟을發起하야即席에서創立大會를開催하고急速히勞로討議를進行하엿는데選擧된執行委員은左와如하다더라(榮州)

◇執行委員
金昌墩、李學均、洪禹寶、朴承勳 李京伊、申壽鉉、黃淳一、李容均 金欽爽、瀬泰中、張遇德、金泰斗 金埰、規約制定委員鄭世武、張鏞文、金永麟

家畜市場取引狀況

合으로一層은進步하엿더라

十四年中東大門外府營家畜市場의畜牛取引狀況은入場頭數牝牛一千二百十六頭牡牛四千八百二十五頭合計六千四十一頭인바其中賣買된數는牝牛七百十九頭牡牛三千百八十二頭合計三千九百一頭로賣買價格은二十八萬七千三百六十一圓이다此를大正十三年度의取引에比하건대入場數에四千九百四十八頭賣買頭數에二千九百五十九頭賣買價格에十八萬七千百七十六圓이增加되엿스며此를府營屠場設置로서府營屠場에서屠殺하는生牛二萬頭에比較하면僅히二割에不過하더라

勞働夜學 不許可

講師가不穩하다고

平壤勞農大會主催의勞働夜學을昨年十一月中에當局에提出하엿든바講師가不穩하다는理由로今月八日付로不許可되엿는데商務勞働者에게는夜學도할수업다고하며一般勞働者는적지안흔不平을말한다더라(平壤)

……外決議가잇섯다더라

◇決議
一、京城少年聯盟에加入할일
一、少年讀本購入의件
一、庶務、敎養、調查各部에責任委員一人을둘일
一、每月一回野營의件、一、少年運動을宣傳할일

◇執行委員
禹義洽 朴潤旭 申昌善 禹壽燁 黃道善 (永興)

群山 籾摺共働組合

第六回定期總會

去五日精米籾摺共働組合第六回定期總會를同會舘에서開催되야經過報告가잇슨後任員을改選하야從來그組合進行條約을一新周密케하엿는데改選된任員氏名은左와如하다고 (群山)

◇任員
組合長李世煥 副組合長車周相 理事李春三 幹事長宋昌燮 監督朴鍾學 監察李民雨 評議員長金吉斗 副評議員長金成勳 評議員李東彥外八人

金海에서 商務組合創立

金海郡에는種種團體가잇서各其事業에努力하나다만商人으로서組織된團體가只今外지업슴을遺憾으로生覺하야商業家有志諸氏의發起로去五日金海面林學圭氏의事務所階上에서發起代表林學圭氏의司會로金海郡商務組合創立總會를開催하엿는데臨席者百八十名으로出席員이百餘에達하엿스며臨時議長으로李國民을選擧한後左記事項을決議하엿는데役員은別記와如하다고

◇決議
一、規約通過 一、發起會의經過報告 一、組合의出資金은每人五圓式으로하야此를四回에分納할것 一、本組合의基本金으로는貧商을爲하야商資를融通케할것 一、其他必要事項은役員에게一任

◇役員
組合長林學圭 理事金興鎬 金武日 朴云奎 評議員安平國外十二人 監査禹致雲 權致奎 金載九 (金海)

榮州 鐵友團創立

慶北榮州無產靑年十餘名이去六日當地靑年會舘에모히여無產者解放運動을目標로鐵友團을組織

務木勞農 分化組織

去十日大會에서

木浦에잇는務木勞農聯盟에서는去十日木浦勞働會舘에서第二回臨時大會를開하고曺克煥氏司會로勞農運動의方向及組織에關한件에就하야討議한結果左開와如히決議하고同十時에散會하얏더라(木浦)

◇決議
一、方向及組織에關한件
務安은務安農民聯合會、木浦는木浦勞働聯合會로分立할것
一、實行委員으로金祥洙、徐東五、趙尙淑、金海、金南叔諸君을選定할것

咸興洋服職工 同盟會發起

咸興에서는洋服職工들이意識的向上과生活條件의經濟的保障을講究할機關이업서日夜其組織에努力하든바去六日咸興靑年會舘에서發起會를開催하고規約草案을通過한後左와如히執行委員을選定하고十日에다시臨時總會를開하고諸般事項을決議할作定이라더라

執行委員 玄柄燁 崔淳集 高致叔 金昌崙 金燮

順寧少年總會

咸南永興郡順寧面에잇는順寧少年會에서는去二日當地靑年會舘에서第二回定期總會를開催하고本會長制를委員制로變更하고本會를順寧靑年會少年部로編入하기로一致可決한後左記委員을選擧

하야創立總會를開催하고宣言綱領及規約을制定通過한後諸般業務를處理키爲하야臨時委員을左와如히選擧하엿더라(榮州)
◇委員 委員長蔡中 金[illegible] 金[illegible] 申益均 朴勝鵬

永宗金融創立

富川郡永宗面은仁川近海의一孤島로서金融機關의施設이無하야島民의金融이困難이多하기때문에同面有志들은恒常遺憾으로생각하야오든바送舊迎新의此時를際하야新事業의第一着으로金融社를創立하엿다는데一株額面은十圓總株數는五百株로限하야株를募集中인데金融流通의便宜와前途有望한機關임으로覺悟한面民들은압흘다토와申込한다하며申込者로서는申込함에金十錢을添付하야同面北里本事務所로送付할것과取締期는陰本年十二月末日外지임을注意할것이라는데役員의氏名은左記와如하더라

▲社長李永華▲常務理事金文煥▲理事金快規全仁培▲監査朴榮振吳斗熙▲評議員金顯壽外九人

淸道花甘洑 改修工事着手

慶北淸道花甘洑總會는豫定과가티去十日華陽面公會堂에서中西龍權氏司會로開催하야新工事豫算總額一萬七千五百圓中三千五百圓은地方費補助하고其餘는花甘洑灌水畓面積七十町步에反當十圓으로하야地主는六圓五十錢、小作人은三圓五十錢으로配當하야本月末日以內로收金하야곳着手할作定이라는데選擧된任員은左와如하더라

◇任員
總長 金明玉 副總長 中西龍權 評議員 金寄鶴 朴在康 朴元伊 蔣炳和 安炳吉 李永鎬 下村忠 藤井福松 白石辰造 山內滿一 雪肥 金喜源 (淸道)

讀者優待의 一年間割引券

本報宣川支局에서는丙寅新年을經하야醫者를特別優待하고저當地宣川醫院에交涉하야今年一年間醫療價三割引券을愛讀諸氏에게能분하게되얏는바모든準備를마치고來十六日부터는實行할터인데宣川醫院長金昌郁氏는四年前京城醫學專門學校를卒業하고大邱慈惠醫院、元山府立病院에서오래동안만흔經驗을가지고昨年겨울에自己鄕第인宣川에歸하야獨立으로前記醫院을開業하야醫療具와모든設備가充分하며以來多數患者에게親切히施療할은勿論赤貧患者에게는無料施療를하야왓는데本報讀者는割引을[illegible]務利用하야來十六日부터는受診하기를바란다하며割引券은來十五日內로交付하리라더라(宣川)

海州新聞配達 會制變更과 任員의改選

海州新聞配達親睦會에서는去九日本報支局內에서月例會를開하고從來의會長制를幹事制로改定하고左와如한決議와任員補選이잇슨後新年業務外지開하고將來進行方針에對한懇談이잇섯다더라

◇決議
一、規則改正에關한件
一、任員補選에關한件
一、會費收納에關한件
一、會館問題에關한件

◇任員
庶務部 金德泳 李其泳 李寬植 敎務部 崔漢植 朴鍾泰 金崙洙 調查部 柳來哲 吳京煥 鄭斗和 (海州)

江東郡에 電燈架設計劃

平壤府外船橋里에잇는朝鮮電氣興業株式會社에서는今春으로江東郡江東面臥龍里石炭礦外지電柱를延長하기로方今準備中인바이機會를利用하야江東市內에電燈을架設하기로邑內有志數十餘名이再昨日同郡廳에會合하야協議한結果即席에서宣傳委員十一人을選定하야各히區域을定하야家家戶戶이勸誘한바一般市民의大贊成으로架設一個月이如意히되리라는데電燈만架設되면邑內는勿論該地方이大發展되리라더라(江東)

黃海道評議會

廿五日부터一週間

黃海道評議會는例年과가티一月廿五日부터同廿一日外지一週間道廳芙蓉堂에서開할터이라는데黃海道記者大會도마침同時(廿六日부터)海州에開催케되는바一般은만흔興味를갓고잇다더라(海州)

三大偉人紀念

元山靑年의諸準備

元山靑年聯合會에서는去八日第三回執行委員會를開하고「리북크네히트」와「룩셈부르크」兩氏의虐殺七週忌와「레닌」三週忌에對하야左와如히決議하엿다더라

一、「리북크네히트」와「룩셈부르크」七週忌에關하야는當日所屬團體會員이午前十一時에山祭洞佛敎布敎堂에集會하야追悼會를開催하고當夜六時에는天道敎堂에서紀念講演을開催하고標語를宣布할일
二、「레닌」三週忌에關하야는午前十一時元山靑聯主催로在元山無產階級團體聯合追悼會를開催하고午後六時에는天道敎堂에서紀念講演을開하고標語宣布를할것(元山)

蔚珍靑年의 革新總會

郡聯盟發起도決議

江原道蔚珍靑年會에서는本會의宿題이던革新總會를去二日本報蔚珍支局內에開催하고田炳文氏司會로諸般事項을決議하엿다는데年齡、宣言、綱領、規約、及各部門에一大變革을加하야今後로는敏速한活動으로會務를執行할作定이라는데被選된任員과決議는아래와갓다더라

◇決議
一、年齡은十八歲以上滿二十五歲以下로할
一、一月二十五日總會에無故缺席한會員은除名할
一、郡靑年聯盟의件
一、全蔚珍第二回庭球大會開催의件

◇委員
朱俊英 田炳文 張相哲 盧德一 (蔚珍)

面目一新한 求禮市場

店舖와陞降臺를架設

全南求禮郡에는모든施設이不完全한中에도더욱히市場의店舖架設이無하야夏雨冬雪에一般商人의莫大한困難이되는바이것을본求禮面에서는爲先九百三十圓의經費로昨年十二月부터店舖十二棟七十二間을架設하고또二百七十圓의豫算으로市場中央地에陞降臺를架設하고그우에는瓦斯燈을架設하야求禮市場의한偉觀이될터이며今年以內로는市場全部에店舖架設을畢할豫定이라는데此後로는遠近商人에게만흔便宜가되리라더라(求禮)

全蔚珍 男女演說大會

江原道蔚珍에서는本報蔚珍支局主催로去二日當地禮拜堂內에서全蔚珍男女演說大會를開催하야盛況을이루엇는데出演한演士와演題는아래와갓다더라

◇演題와演士
우리의病弊 申鶴伊 눈물의使命 張元昊 現下朝鮮人의活路 盧德一 社會連帶主義 張龍敎 女子世界 李禹錫 三聖을追憶하며 田永壎 人生과自由 張相哲 藝術家에訴願 盧寅一 改造의참사람 金永圭 (蔚珍)

景浦靑年 面聯盟 去五日에創立

咸南洪原郡景浦面靑年團體에서는昨年十月十日洪原靑年聯盟의創立된後面聯盟의創立할必要를感하야面聯盟創立準備에奔忙하던바去五日同面景明學校內에서準備委員朴雄鍾君의開會辭로創立大會를開催하고規約及綱領을通過하고後郡聯盟의祝文朗讀과來賓祝辭와選擧된任員의氏名은如左하다더라(洪原)

◇參加團體
甲子靑年會 觀德靑年會 一九二三靑年會 梨花靑年會 南湖靑年會 實業靑年會 右上靑年會 東湖靑年會

◇執行委員
朴雄鍾 姜錫甚 金允植 朴斗鍾 金孝鍾 吳完燮 田鳳吉 金和龍 方德裕 李璉煥 崔榮洙 洪南裂

臨時大會開催

景浦靑年聯盟에서는昨日臨時大會를開催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엿다더라(洪原)
一、洪原靑年運動에總本領이될것
一、勞働夜學을設立할것
一、洪原靑年總聯盟에加盟할것

執行委員會

景浦靑年聯盟執行委員會는六日同會舘內에서開催하고左와如히事務分擔하엿다더라(洪原)
庶務部 田鳳吉外三人 敎養部 吳鍾甚外三人 社交部 朴雄鍾外二人 運動部 朴斗鍾外三人

康津郵便 配達에不注意

全南康津郵便所에서는一般通信事務의遲延으로批評이不少하던바近에는同郡七良面明珠里金永圭에게가는新聞과同所居致洪에게가는書信을十五日만에傳達하엿다고當事者들은配達夫의不注意를責하는同時郵便의疎忽을매우非難한다더라(長興)

光陽 記者團臨時會

光陽記者團은去五日西廳旅館에서臨時會議를開催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엿다더라(光陽)

◇決議
一、本記者團員又는記者團을侮辱한者에對하야謝罪를要求
一、某報에서地主安峯鎬에對한記事에關한件
一、全南東部記者大會發起團體參加에關한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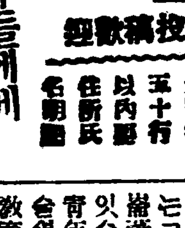
甲子俱樂部 總會와祝賀式

咸南永興郡憶岐面昭山塔山新陽德美洞의有志靑年으로組織된甲子俱樂部에서는去六日부터新陽里臨時會舘內에서第二回定期總會를開하고會長制를委員制로變更하고左記諸項을決議한後,俱樂部二週年祝賀式을形便에依하야即日即席에서開式하고創立二週年祝賀式萬歲三唱으로써無事閉式하얏다더라

◇決議
一、從來會長制를委員制로變更할일
一、新陽場에서經營하는勞働夜學을極力後援할일

◇執行委員
朴東協、姜宅萬、朴性善、崔元實、朱銀煥、趙秉模、安承憲、黃寬斌、金弼相 (鎭興)

阿間靑年들에게



投稿歡迎 十四字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無反省은敗沒의罷이엿다即滅亡을意味한것이다그럼으로昨者는阿間의將來를爲하야나의故鄕인阿間에감추워잇는秘密을널리天下에公布하야諸君들의反省을促한다

◇해는이미밧구엿다 새해의新抱負는무엇을目標하려는가?過去數年間諸君들의經過는果然엇더하엿는가? 멀리잇는나로는疑心을마지안는다

◇已未運動以來阿間에도文友會、素潛團等의새生命이생겨낫다 그러나멧해를거듭지아니하야今日에는그形跡外지도찻기어렵고崔宗崔濱希宜氏의長逝의한숨을줏고잇슬뿐이다 그러고即今은實業靑年會의微弱한旗발을날리고잇슬뿐이다 또보라우리의生命인敎育機關을! 數年前外지도太鄭在先生의努力으로 각금각금多期講習會가開催되엿다

◇그러나昨年여름에不幸히先生은阿間敎育界의 終幕을다치고 다시도라오지못할저世上으로가고말앗다 그리하야唯一의指導者일흔阿間의現在는果然暗黑이다배우려하여도배울수업는靑年들은定處업시彷徨하면서다만無心한하늘을咀呪할뿐이다

◇諸君들이여!이것이참으로무엇을證明하는것인가果然諸君들의熱烈、精神과健康한身體는무엇을하고잇는가?數萬의人口로叢集하여잇는面으로代表할만한團體한아도업스며認證할만한敎育機關한아이업는것은오즉阿間面에서만보는不幸이다

◇君들이여!時代는이미變하엿다온世界는樂園의地帶를차젓다우리도살어야하겟다二十世紀活舞臺에서뛰어야하겟다그러나이世界는오즉强者의獨占物이다그리하야남으로打擊을밧는것은우리일뿐이다

◇諸君들이여!좀더奮鬪努力하여라 그리고長限의한숨을쉬고잇는先生입들도좀더徹底한指導者가되여줄지며落望의悲哀에싸여잇는兄님들도새해의元氣를바더 一層奮鬪努力하야 쓰러지는阿間의社會를爲하야犧牲되기를바란다 이것이곳우리靑年의本來使命인가한다(在京崔生)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Tuesday, Jan. 13th, 1926.

From My Old and New College Essays.
By W. S. Rhiw

Since Conservative Government defeated by the Labor vote of censure on Jan. 17, 1924, every device was used to coerce the eletorate, but final result was the formation of a pure Labor Cabinet in England. The Moscow Isviestia criticized that; "The result of the elections is a serious warning to the bourgeoisie as well as to opportunist Labar leader.".

Mr. Ramsay Macdonald the Labor Premier of England, was the greatest Foreign Secretary they have had for many a long day. Comming in at a most difficult moment, with a hideous legacy of blunders, he has succeeded in half a year in restoring the moral authoriy of Britain and reviving the confidence of foreign govevnments and of foreign peoples in the fundamental idialism of the English proletarist. In his handling of policy, for the existance of his cabinet and improving of the domestic problems, demanded to take an active policy in foreign affairs.

At the "comming event" of recognition of the Soviet Russia by various European countries, he appeared as the direction of Europe. Recogniton by England forced France and Italy to resume normal political relations with Russia and the nations of the Little Entente soon followed to recognize the Soviet Government. Agreement with Russia would to a welcome expansion in Britains export trade, as Macdonald had said that. "The Russian market would be reopened to our merchandise and propaganda had been stopped."

During the year, besides, allied nations were threatned with fresh conflicts as to the resolve of German indemnity. However, he called a London Conference to mediate their ultimate conflicts, Unitid State also attended to propose the so-called Dawes Plan, for her war debts. The calling of London Conference on 16 July, he has shown that the internationalism, that has always figured on the Labor programme is, in fact at the present moment at any rate, Labor alone can put into practice.

나의學校論文中에서 (一) 昇生

光陽女靑同盟 創立準備會

全南光陽郡에는일즉이女子靑年會라는名目으로女性團體가組織되엿스나그內部에는基督敎的色彩가濃厚하엿스며또한挽近以來로는그會의存在를疑心할만한狀態에잇슴으로새로운女子運動에努力하려는女性들은去八日光陽靑年會舘에서光陽女子靑年同盟準備會를開催하고左記와如히決議하엿다더라(光陽)

◇決議
一、會名에關한件 女子靑年會를光陽女子靑年同盟으로變更하려고하엿스나그會의幹部또는會員의多數가會合하기難함으로會名을女子靑年同盟이라하야創立하기로할일
一、創立總會招集에關한件 創立總會는本月十三日光陽靑年會에서開催하기로할일
一、規約起草委員選擧

蔚珍少男女 雄辯討論大會

江原道蔚珍郡에서는當地法後進靑年會主催와本報蔚珍支局後援으로蔚珍少年少女雄辯討論大會를當地禮拜堂內에서開催하엿다는데「家庭敎育에는父냐?母냐?」라는演題로父便黃允源、李元春 母便黃陽金、班昌達이엿는데母便이勝하얏다더라(蔚珍)

新友「클럽」을 新高山少年團으로變更

咸南安邊郡新高山新友클럽은靑少年의修養團體로써만흔貢獻이잇든바本月七日第四回臨時總會를開하고會員年齡을十八歲로制限하는同時新高山少年團으로改稱케할事를滿場一致로可決하엿다더라(新高山)

保光昇格後援會

本月九日下午八時元山靑年會舘에서保光學校昇格後援會委員會를開催하고同委員會에當地某某兩學校에서財產全部를寄附할意思가多하다는提議가有하야五持對議한結果該兩校에交涉委員으로李濚鉉、忠熙、趙鏞九三氏를選定하엿다더라(元山)

善行者調查

江原道三陟郡에서는郡內에對한左記事蹟이有한者를表彰하기爲하야方今調查中이라더라
一、孝子又는節婦 二、民心融和에努力한者 三、產業衛生及交通機關의改善 四、勤儉貯蓄其他美風良俗獎勵 五、學事獎勵 六、慈善事業經營 七、其他特殊事蹟이有한者(三陟)

換湯不換藥

漆谷紛糾後聞

漆谷公立普通學校에서는同盟休學의原因調查로因하야校長과訓導사이에격鬪의風波가지잇섯다함은旣報하엿거니와該道當局에서는訓導朴秉鎭은若木公普로訓導梁在河氏는仁同公普로各各轉勤케하고問題의高橋校長은留任한다는데校長排斥으로同盟休校가지난校長은그냥둔다고一般의不平이만타더라

龍岩浦 救世學校曙光

寄附許可로 募捐에着手

平北龍岩浦私立救世學校는隆熙三年에設立된以來十餘星霜에만흔英才를敎育하야 우리社會에적지안흔貢獻이잇던바近年天災로因하야敎育보다도먹기에沒頭한農民들은一朔에四五十錢이나마내일길이漠然하야學生은年年히줄고經費의困難은刻刻甚하여오던中當地商務會와女子敎育會로부터多少의도음을밧아僅僅히殘命을維持하여오던바新敎育令이實施된以後로는더욱히建物과學制에不完全함을늣긴同校當局者와一般有志들은奮然이그發展策을講究한結果一方으로는學校後援會를組織하며一方으로는寄附金募集을道當局에提出하엿던바昨年十二月二十四日付로許可되엿다는데新年初부터寄附金募集에着手하얏다는데郡內有志들의깁흔同情을바란다하며募集委員은如左하다더라

一、金額三千圓
一、募集委員 校長李錫泳 黃觀河 金丙浩 李彬 張英實 宋潤鎬 (龍岩浦)

郭山郵便 配達一層敏確

郭山郵便所에서는同所職員一同의努力으로一般通信事務의發展을期하야오든바今般同所長과本支局과의協議上本月十日로부터는郵便으로配達을受하는本報讀者各位에게配達日마다當日配達되는本報의新紙에讀者各位의捺印을受함으로써從來의傳達惑은漏落과가튼弊害를一掃하도록하고同時에一般讀者의便宜와아울러同所配達事務도一層正確을實現하엿다더라(郭山)

◇寸鐵◇

【鏡興】 某公立普通學校同窓會에서는創立總會席上의用語는日本語이엇다고同窓會라말고同和會라면엇던가

◇

【竹山】 十二蝎甫로有名하든竹山長善里에는近日또다시蝎甫가大盛況이라고아마이것도復興의餘波인듯

◇

【海州】 日本어느大學出身그우에金滿家의子弟란肩書를가진靑年紳士한分은新正之初에人力車바람으로酒釀을맛도앗는데朝鮮總督府郡守는何여는堂上이라고物論이藉藉

城東面民大會 面長願留決議

去十日論山郡城東面民은月城里梁在浩氏家에서數百名이모히여突然히今般辭任한面長方圭錫氏에對한郡當局의無理한擧措에憤慨하야斷然히留任케하기로一同은左와如히決議하고郡當局에交涉할委員外지도選擧한後에徹底한運動을하기로하엿다더라

◇決議
一、現面長方圭錫氏는그人格과學識經驗等은勿論面行政에關하야理想的面長으로認하니面民은絶對로留任케할事
一、再任運動에對하야는郡當局에交涉하야圓滿解決을得치못하는時는上級官廳에陳情하는等最後外지努力할事
一、前項의決議를實行키爲하야委員五人을選定하고運動方法一切를委任할

◇選擧된委員
朴祥煥 姜榮培 趙東旼 梁鳳錫 徐相德(以上交涉委員) 林義喆 金光鎬(以上調查委員) (江景)

레와갓다더라
崔東福 成信灼 李稱石 成判奇 朱仁順 朴近春 成大根 美炳守 金容福 徐永澤 成權洙 孫今斗 金寧珏 南基 禹敬道 金鍾甚 黃在三 表仁彥 李時保 梁元燮 禹判東 吳長元 朴良仲 金云淑 孫懇岩 許瀰喆 許玉允 崔福云 徐光云 表敬泰 金相洙 金昌洙 李朋喆 成一同 徐應烈 崔基先 崔南喆 黃佶鉉 徐相旭 黃生周 安昌和 李盛根 梁奉伊 朴處禮 宋基華 朴爾永 (木浦)

宗敎團體에 會館貸與嚴禁

新高山靑年會에서는新高山靑年會의第二回聯合執行委員會는本月八日同會館內에開催하고金達榮君司會로各團體及委員의報告가잇슨後重要한決議事項은如左하다더라
一、宗敎團體의一切集會에會館貸與를嚴禁할(新高山)

密陽敎會發展會

去九日發展會第一回定期總會가密陽禮前發會堂에會集하여會長朱謹祖氏의司會로開會한後諸般事項을決議하엿는데新任된委員은會長의朱謹祖 書記金敬俊 總務金秉煥 會計安三得 傳道部長金鳳音 樂部長金敬俊 社交部長朴敬淑 主日學校獎勵部長金來鳳諸氏가被選되고評議員은留任하기로可決後閉會하엿다더라(密陽)

龍岩浦童話會

龍岩浦靑年會에서는新義州時代日報支局記者張晨栻氏의來龍한期會를利用하야去二日當地幼稚園內에서黃觀河氏의司會로童話會를開催하엿다는데男女어린少年들의滋味를誘起하얏다더라(龍岩浦)

七十老婦人 六百圓을喜捨

黃海道安岳郡安岳面小川里一百二十四番地金錫俊女史는當年七十四歲의老人으로子孫업시數十年前부터獨身生活을하면서勤儉貯蓄하엿든金六百圓을慈善事業에쓰라고當地禮拜堂內에寄附하엿다는데一般信者는氏의特志를感謝不已한다하며社會에서도稱頌이藉藉하다고(安岳)

四十餘犧牲者 慈恩爭議에

務安郡慈恩面小作爭議로因하야二百餘警官이出動하야小作人四十餘名을檢擧하얏다함은旣報한바이어니와이어檢束된小作人幹部及會員의氏名을調查한즉아래와갓다더라

水原靑年會主催 畿湖懸賞歌鬪大會

申請 二月十八日外지 水原靑年會로
會費 每一人金壹圓 (百名限)
開會 二月二十日上午十時公會堂에서
賞品 一、二、三等各一人式
後援 時代、東亞、朝鮮三水原支局
(但晝食準備)

001586

中國戰禍를버서나 仁川에온四人家族

도로에서방황하는것을보고 자선회로부터구휼금을지출

중국(中國)봉텬성(奉天省)에서 약삼십리되는대석교(大石橋)란 곳에서 농업을하야 근근생활을 유지하다가 작년십이월중에 중국동란의 참화를당하야 재산과 의복을 전부빼앗기고 겨우 권선을버서나서 멀리그곳으로부터 고국에 도라온 신현필(申鉉弼)씨의네가족이 본월이일에본선으로그의고향인문경(聞慶)으로 가려다가 무면도강(無面渡江)의 뉘우치는 마음이잇서고향으로 가라는거름을 돌이키어인천으로 와서 또한본보지국을 방문하게되엿다한다 인천에온들 무슨희망이 잇스며 구명도생 할길이잇스랴? 임신(姙娠)중에잇는약한처와 긔한(飢寒)에우는 두어린이를 도움이 업슬것인데 비참참혈한 그정경을 고 이리저리도로에 방황함을 본외리(外里)김상규(金相圭)김유근(金有根)량씨발긔로당디조선인자선회(慈善會)에 관한원서를 제출하엿는바 자선회장 최응삼(崔應三)씨도 참경에 싸혀잇는 그정상을 불상히녀겨 지나간십일일에 자선회의 돈십오원을권하며 내리(內里)대동상회(大東商會)정인식(鄭寅植)씨도또한그 정경이 가긍함을보고 금오원을 동정하엿다는데신씨는그금액을 바다가지고 화정(花町)일뎡목칠십오번디 일본사람의 집에거주를 안정하게하엿스며 따라서 감사함을말지아니한다더라(인천)

本町强盜事件 眞犯은日人인듯

경찰은수색방침을고처서 일인측전과자에게주목해

긔보=신년을마즌지불과십여일에 벌서두번이나 대담한강도가시내본뎡서(本町署)관내에출현하야 소관서원들은 적이초조한상태에 잇다함은 루보한바인대동서사법계에서는수하(手賀)사법주임을 위시하야오(吳)경부이하 사법계원전부가 십일일밤을 새어가면서전과자명부(前科者名簿)를펼처놓고시내에도가장 그럴듯한방면을 며수색하야 십수명의혐의자를 데포하야 신문을하엿스나 그들모다는진부애매한 혐의자인 까닭에즉시 놓아보내고 아츰일곱시가 되여서 겨우자리에누엇다가 열두시경에 다시수색을계속하엿다는데 이번에는 수색방향을변경하야 일본인측을 주목하는중이라는바 그는 루차발생된강도사건의 피해자들이 범인의어투가조선인이 일본말을 하는것가티들리드라고하엿스나기실은범인피신책(避身策)인듯할뿐아니라 가장 그럴듯한방면을 더수색하야 십이일 아츰에는 시내룡산한강통(漢江通)에 거주하는 일본인북원(北原)모가가장유력한혐의자인듯하다는 소문을 듯고곳그방면으로대활동중이라더라

横暴無理한 梨泰院墓地看守

자긔의리덤을쎅기게된다고 장례회자객을란타하야중상

原因은蓬萊社를猜忌하야

십이일오후에 룡산리태원 공동묘디(龍山梨泰院共同墓地)에서는 공동묘디간수 리홍순(李鴻淳)와 인부십여명이마츰장례의위탁을 바더가지고 나갓든시내장곡천뎡(長谷川町)에잇는봉래사(蓬萊社) 십장(十長)뎡봉섭(鄭鳳燮)과 회장으로 갓든김현규(金顯奎)등두명을 란타하야 각각 삼주일 이상의

치료를 할만한중상을당케하엿슴으로 피해자들은 소관룡산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를데긔할터이라는데 이제 그자세한면말을 듯건대 전긔봉래사에서는 종래경성공동묘디 간수들이 자긔와 작뎐이 묘디의평수와등수를 지뎡하야주며 이장(移葬)과가타 자의천단의폐단을마음에잇슴도 불구하고 일반매장하려온 시민들에게 긔구새이니인부임금이니

말뚝갑 이니하야무리히증수하는악습과 종래 경성장의사(葬儀社)상두군들의 폐습으로일반시민이 막대한곤난을 밧게되는고로 이것을유감으로알고 일반상가의편의를도읍기위하야최근에 사회뎍공공사업을 반분이상이나목뎍하고 일반 장의에대한 모든설비를 충분히하는동시에 분묘들오년간보험하야출 책임외지지며 또는묘디에서 사용하는긔구는일절

세금도 밧지안코기타여러가지에대하야도 권부 원가로데공하야 일반장의를 취급하기로하고 이에대하야 이미경성부의양해까지어든후일반장의를취급하야오든바봉래사에서이와가티한이후로는시내상가에서는여러가지편의와경제상편부권긔봉래사에장례를의뢰하게됨을따라공동묘디간수들이종래에행하야오든긔구의 세금과인부의 임금을바들수가 업시되며 말뚝을파러먹을수가업는등여러가지자유롭지못하게되는고로이래봉래사에대하에더대

행위들 취하며여러가지악선뎐을하야 오든중 마츰전긔십이일에 시내봉래뎡(蓬萊町)사뎡목오십육번디박창성(朴昌成)의집장례를 위탁바더가지고 가서묘디를등외디(等外地)로신청하엿는데몰면히객사디(客死地)로 지뎡하야주는고로 그에대한무리를말하다가 그와가티 란타를당한것이라더라

一月一日에 鐵山郡廳員酗酒

가택침입죄로고소를맛나

텰산군텽군속(鐵山郡廳屬)김모(金某)는 지난일일 오후륙시경에 텰산읍중부동(中部洞) 손의섭(孫義燮)씨집에 침입하야 참아말못할비행을 하엿다는데 이제 그자세한내용을 소개하건데 그불은아마 신년인사를 하려다니면서 공술에중독이 되엿든지 권귀 손의섭씨는 마츰사사일로 촌에가고 실문부인과 나만흔로인 어린아이들만 잇슴을엿보고 씨안코 내정을입을하야 아래목에누어서 참아못할추행을 요구함으로 부인들은 부엌으로도라가숨엇스나 부엌문을열고 또그러말을함으로 손씨모친은 의정으로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드려 무슨연고로 남의내정에 드러와서 불미한행동을하느냐고책망하는그소리를듯고나간다고 하면서 내정에서나옴을보고행인은 자긔 집으로도라왓는데김모는 행인이 나감을다행이알앗는지 다시안방으로 드러가서 남의버게를고내여 빼고누엇슴으로권귀손씨모친은또다시 밧그로나와서 지나가는사람에게 그런행동을말하야 그행인이드러가서 김모를 쓰러내엿는데 그다음에는 그뒤집 모순사 의집젊은부인혼자잇는 방에가서 모자를내이라고야단을부리다가 갓다한다 모순사는 김씨를불러다가 책망을하니가 대단히잘못되엿다고 사과를하고도손씨집에와서는하등사과와 인사도업슴으로 이를분개하야권귀김모를걸어경찰서에고소를데긔하엿다더라(텰산)

어미가내여바린 四歲女兒의餓死

귀한에못이여우든아이가 음식뎜압헤서어러죽엇다

전남장흥군안량면기산리전량임(全南長興郡安良面岐山里 田良任)은 수년전부터 음식점영업을하는중 동군동면해창리(海倉里)방순경(方順京)처차소아(車小兒)는 일직가군과갈려서생활난을부르지저사방으로유리걸식중에 지난초오일에 일긔는차고 눈은나려 일신도감당키어렵던지 사세된여아를 전긔전량임 음식점에다가바리고자긔일신만 어데로갓는데 당일에 전량임은 자긔 며느리되는 최업비(崔業比)(三)와가티 마을에가고 딸되는임안순(任安順)(八)만집에잇슴으로 임안순이가 홀로아이 울음소리를듯고 라데유아의불상함을 생각하야 온돌로인도하엿더니 전긔전량임이가 마을로부터 며느리와가티 집에도라와본직 어린아이가 잇는지라 딸에게 무러본후 그어린것을문밧그로 내여노앗더니 그잇흔날오시경에 라데유아가 춥고배곱하할수업시 죽은것이라는데 그어미되는 차소아는 근일동군장흥면예양리(同郡長興面汭陽里)부근에서 밥을빌다가 경찰의손에걸려 어린아이를 바린혐의로 취됴중 이라한다 그러나 그를목도한사람은 누구나 음식뎜주되는권량임의 소행과 자긔딸을바려죽게한 차소아의소행을 분개히역인다더라(장흥)

饑饉同胞를救濟한 金允昇氏의美擧

간도의한재로곤궁한동포을

간도의음력갑자(甲子)년의한재는 봄으로가을까지계속하야 간도일폭에대한 미증유의 재해인것은 내외디를막론하고 우리백의동포들은 다가티아는바 음력을축(乙丑)년을당하야도역시봄부터 여름까지 한재가또한심하야초의목실(草衣木實)도엇지못하고주려죽는사람이불소하엿고삼순구식(三旬九食)도하지못하는자가십상팔구엿다 그중에도농촌생활은더말할수가업섯다 그런데간도룡정시부유상뎜(間島龍井市富裕商店)을경영하는 김윤승(金允昇)씨는연길현 용지사진자구(延吉縣勇智社辰字溝)에서 거주하는 농민들에게이백여석의곡식을대부하야그디방농민들의긔사를면케하고농업을여전히경영케되여그디방인사들은 엇지하면 그은혜를보답할가하고 주야로 근심하던바가을이후는모든곡식이풍등하게되여김씨의 은혜를갑기에 어렵지안케되엿다 그리하야 곡식을대부할당시에 매석십원이상의 시세가되엿든고로 지금와서 십원에상당한 리자를 첨부하야 보답하려고 준비하여 가지고 만은농민들이 김씨를 차저가서 감사의 예를한후 대용하엿다하나 일반농민들에게대하야나는잇는곡식으로로당신네들의끈공앎을도앗는즉 지금에와서 더식을바들은내도리가 아니고그해의 곡가시세로바들도 내도리가 아닌즉 그해의내곡식을 한섬사용하엿스면곡식한섬만을주고두섬사용하엿스면 두섬만돌려주고 하며바뎟던바를로권부탁하엿다하지금은그해의곡가와비교하면상당한일밧게되지못한다고그런고로그디방농민들은 귀사에합한 사람들을살려주고또한 지금와서 상당한의일밧게빗지안는김씨의자선심에대하야 감복하는농민들은 김씨도리가서 은동리사람들이 김씨의자선을 란복하며 간도일반인사들도 김씨의 자선에대하야칭송을마지안는다더라(간도)

韓氏도檢擧

긔보=지난십일밤원산경찰서(元山署)에검속된원산청년회원(元山靑年會員)십삼명의 련두자로 고성(高城)본집에서 결혼준비(結婚準備)를하고잇든 한명찬 …… (鄭明倫)씨까지검거되엿다더라

今日

新春女流大講演會

鐘路中央靑年會舘에서

◇……午後七時에開會……◇

有夫女를꾀이여 正式結婚을擧行

쌍동이까지다린소부를달래 봉텬재류하이와결혼식햇다

봉텬성신민현공태보(奉天省新民縣公太堡)에잇는 장성녀는자녀까지나허가지고오죽살림사리에열중하든 남의유부녀를 온갓수단으로유인하야다가그곳교회당에서 결혼식을 거행하얏든사실이 최근에폭로되자 재만조선인사회에서는 그와가튼

휼륙무도 한비행을감히행한에대하야 크게분개 하는동시에일대비난이자자하다는데이제그자세한말을듯건대평안북도의주군위원면동상동백마 (平北道義州郡威遠面東上洞白馬)에사는최양봉(崔陽鳳)의장녀선희(善熙)(三)와동군의주면동부동박○○(同郡義州面東部洞朴○○)은지금으로사년전에 결혼하야이래사오년동안을

살어오든 비재작년구월경에 전긔박모는 불행히늑막염이라는병에걸려 사오삭간을 병석에서 신음하든중 의사의말이병을완전히 고칠혜하지는 부부가동거하는것이환자자신에크게조치안타함으로 이말을듯은 박모는자긔처자를 즉시 본가로보낸후삼사개월동안을 병원에서 신고라가 요행으로 병이쾌복되어퇴원케되자바로백마(白馬)인

자긔처가 를방문하고본죽멋고갓든 자긔의처자가 보이지안음으로장인최양봉(崔陽鳳)부부에게 그간바를무른매 나역시딸뇌간곳을 모른겟다는 무책임한말로 답변을함으로 여러가지로힐문도해보앗스나당석에서별반방책이업겟슴으로그집을떠나근방각쳐에탐문을하엿스되또한그의자최를찻을수업서지금것지내왓는데 일젼에

어느곳서 전하는말이선희(善熙)는봉텬(奉天)방면으로게가하얏다는소식을 듯자 두엇보다도금년세살된쌍동형제가잇스니 그유아(乳兒)를 찻지안호면 안되겟다는 생각에즉시고향인의주(義州)를 떠나봉텬에 이르러각쳐로수색한결과봉텬성약륙십리가량되는공태보(公太堡)에잇는 강달섭(康達涉)과 부부가되여산다는

말을듯고 바로 공태보(公太堡)로향하야 전긔 강달섭(康達涉)의 집을차자가 보죽강달섭은 당시조선버디에 드러가고업섯는데과연그집에는자긔안해인선희(善熙)가잇섯다그리하야당초의사건동긔의진말을무른니당디서수십리되는사령(砂嶺)이란곳의백재하(白在河)의처장성녀(張姓女)(?)는

자긔아들 원복(元福)의혼처(婚處)를 각처로 구하든바전긔강달섭의 장녀(長女)가 목하십팔세묘령에잇슴을뿐아니라그의자태가또한아름다움을보고즉시강씨(康氏)의집을차자가서나의아들과 그대딸과 결혼을하자하얏스나 강달섭의 말이나는얼마전에 상처한 이후로는가정에대한 일절살림을 내딸혼자서보살피게되는고로내가속히후처를뎡가식할수가 업다는말을 드른권

하기까지 에는도저히승긔장성녀는 무슨수단을 미덧든지그러면 당신의후처될 녀자를구하야줄것이니 그대의 딸은나의며느리로 줄것을 단단히서약(誓約)한후 호긔잇게 자긔집으로 도라와서 일변행장을수습하야 가지고 고향인조선의주(朝鮮義州)에 드러가서 방방곡곡(坊坊谷谷)으로녀자를듯보든중전긔선희가

친가에와 서잇슴을모방면으로 탐지한장성녀는 올타이제야 걸렷다십허서 시시때로선희(善熙)의 집을드나들며 오즉긔회만 엿보든차에 마츰선희의친가에는 가정불화로 인하야잠시다니라왓든 선희에게 와지안 장성녀는이를피하지못하게 됨을불안의 늣김을면치못하게 됨을아름피로 드나들며 얼마나간악한수단과 감언리설로 꾀엿든지드듸여

어린선희 는봉악한악마장성녀의 최면에걸리어 자긔친가에는잠간신의주(新義州)에단녀오겟다하고 어린쌍동 형제를잇글고안동현(安東縣)에이르러서는 전긔장성녀의말이 쌍동형제(雙童兄弟)를다리고갈필요가업스니이곳에서누구에게주고가자하얏스나한시를떠러지지안코오죽어마의가삼에안겨어금을거리며온 갓재롱을 피우는

쌍동형데 를떼어버리기가는 참아어미의 마음으로는애처러워서 못하겟다고 종시거절하얏든바 이에거절을당한장성녀는 일층더강경한 태도로써말하기를 아모리하기로 선희의자식은 못될것이니 부즐업시데리고가지말고 이곳에서 버리고가자고 성화가티 강청함으로견듸다못하야 할수업시쌍동형제를 한아만을 안동현에서 아지도못하는

하는사람 에게내주고는바로 봉텬행렬차를타고와서 전긔공태보(公太堡)로다리고갓스나 다만악마의최면(催眠)에 걸려서 쇠를련간선희는 금기가서본죽장성녀의여러가지됴건이든말과는아조판이이엿다잠시를머므를수업스나어린녀자약한몸이사고무친한이역외촌에잡긴몸이되엿스니진퇴유곡이라한갓주야란식에 연약한가슴만

써릴분이 엇다그리하야권긔장성녀는 선희를 데려오기까지는하엿스나 정식으로 하로밧비 결혼식을하지아니하면 도처히 강달섭의딸을 며느리로가저오지못하겟다는 마음에서 그곳교회림준벽목사(林俊碧牧師)를차저보고 강달섭과 최선희와의결혼을 거행토록하야달라 햇스나 림목사는 그녀자의내용을충분이아지못하고는

지금결혼 을허락할수업다하얏스나 장성녀는 바로의긔잇게 그녀자의 남편이 모히중독자로 작년에 안동현에서객사(客死)한 사실이 명백하니 별려말고 혼례를 일우도록 해주면장래는 내가책임을 부담하겟다는 증서를써노코 선선하게도장까지 찍엇다한다 그런후또한 긴급히 선희의잇는곳을차저가서 무수한위협을보이며 만일누구가뭇거든 남편은

죽은지가 오래되엿다고 해야지 만약바른대로 말을하는때에는 조처못하리라고 별별악한수단을부려서 급기야 교회당에서 정식의결혼을 일우게한후 매일가티 강달섭을차저가서 이제는호취를 뎡해주엇스니 그대의딸을 내노라고 성화가티독촉을함으로도 하는수업시 자긔딸을 장성녀의 며느리로 주엇다는데 처자를일시에일엇섯든박○○은 찻기위하야 전긔장성녀와 선희를다리고 봉텬안으로 드러와서

무엇보다 도쌍동형데를 장차쌍동을 바린곳인 안동현으로 갈예정이든바 자긔모든악행이 폭로됨을알고 공포중에잇든장성녀는 드듸여 삼사일전에 어대로도망하얏다더라(봉텬)

成川丫波에잇는 耶蘇敎會의大紛糾

전도사를내보내자고 수백교인이단결배척

성천 파(成川郡丫波)는 동수가수백호요또한상업이성황한곳으로 수천주민이 생애하는곳인데 근일그곳에서는 감리교전도사(監理敎傳道師)이박창빈(朴昌彬)씨를 배척하게되얏스며또한 감독목사인녕변(寧邊) 문요한(文要翰)

선교사에 게배척결의문을보내는등 큰야단중인데 이제그배척된동긔와 그내용을 됴사하건대 아래와갓더라

이제 박목사가배척을 밧게된원인은

본래성천 이온후하고야소의독신자로서 모든사람의 총애를바닷스며 삼년전아파에부임한후는 교인의머리로서 조곰도 붓그럼이업섯다 더욱이시절이라 그는 긔미후의모든세계사정이 단순한 종교운동보다도 한거름나아가 사회운동에도 몸을던질마음이생겨나 결국은 한고안을엇게되엿스니 그것은디방농촌이라농촌의청년은

규합하야 한큰세력단데를조직하야 이를잘인도하는 가운데는 간접으로 자긔의본무인교회사업에도 월도가 될것을엿보앗다 그럼으로그는 그곳모모청년으로 더부러 농촌운동을이르키게되엿스니 그것이 작년봄에창립된 로농상조회(勞農相助會)이다 그것은 수천의회원들모아입회금과 기타회비로 수천원의긔본을삼아

일방으로 농촌운동도하고 영리사업도하야 그회의발전을도모코저하야 자긔가 스사로회장이되야 이래사업을 계속하여왓든것이다 박씨가 그와가티 활동하는 가운데에는 야소교의

숙정권사 (崔貞權士)등을다간부로 인도하야 한가지로 일을하여왓섯는데 모든 사업은 실패로 도라가고 수천원의회비는 잠바이지 안는사람도잇서 자연히 그회의존재는 날로위태하여지게되엿다 그럼으로 처음의 긋은뜻은 한아도 일우지못하고 정컴 때문에가지을쌍봉해 치원중에는 불평분자를 내게되여결국에는 그회도 랑파로갈리우게 되엿다그후부터는모든

회원의원망 이 자연히 생겨 박회장(朴會長)을불신임하자는등 별별말이 다물앗스며심지어 엇던회원은 사긔협행동이라고도하엿스며 또한 박회장자신의 명예덕가면 행동이라는커 주장까지잇서왓다 그들은 회원들을 엇더케하던 컴컴그회의내용이허터져감에이커부득이무삼방법을써야하겟다고 얼마남지

안은회비 를내여엇던신문지국까지경영하게되여회원에게분배하여온바 처음의 긔대이 표방하게되엿스나 금일의지분국이 경비업는이업이엇스나 이것이그회의 나중사부채구덩이로 폐지하고못하게섯다 그럼으로 나중에는이것도 모든회원은 알릴줄이 도정치안코떠들기시작하엿다 그럼으로이조합의 간부가교회의 직분이 되리만치

교회안에 도당파가생기게되여 리면건(李冕健)최승준(崔承俊)박창섭(朴昌燮)등은이에 대책을협의하야 권고인에게 박전도사배척을 이르키게 되여 드듸여 지난주일에 결의문을지여렴편의감독목사인문요한선교사에게로 보내여 우리는그목사가권고되기까지 결코 교회로 나가지안는다고야단들이라하며

또한일반 사회측에서도 그 모양으로 배척을 이르키며박목사는 고립의 상태를이루웟스며 긔를모든다는데이문데는박금 근래에 드문데사건으로그의장래를매우주목중이라더라(성천)

酌婦의 飮毒自殺未遂

원인은고주의학대라고

지난칠일 하오칠시경에 군산부메정동이십오번디 (群山府大井洞二十五番地)의 음식뎜에고용으로잇는당한선(張翰仙)(三)이란녀자가 돌연히자살로자결하고 양재물을먹다가 그고주 (雇主)에게발각되야 강제로빼아슨 제그자세한내용을듯건대 그녀자는삼년전에삼백륙십원이란큰빗을 신병에 자긔몸이팔리여으로온바 마음에업는 우승으로여러손님의 괴롬을바다가며 삼년동안의 장구한세월을 보냇스나 적검채금은 증가되야삼백팔십원의 거액에달하고 또는주인의학대가날로심하야참으로살수업서서고와가티자살까지하랴한얏다한다 그런날도 그주인에게몸시마치어서 머리와전신에 상처가만히잇다더라(군산)

安東檢擧事件後報

총출동으로검거하엿다가 삼회로분배석방하엿다고

경북안동군(慶北安東郡)에잇는 사상단데화성회 (火星會) 의창립일주년 긔렴일이 지난팔일임으로해회에서는긔념식을성대히준비한다함은 긔보와갓거니와 지난칠일하오 이시에준비에분망한해회 상무위원 김우권(金雨田)씨를오출하야금지를식힘으로김씨는 그리유를

물엇스나 세저서장(笹瀨署長)은경찰부의명령이니가리유도말할필요업시절대로금지한다함으로해회에서는여러가지로대책을 준비한 결과 부득이 엇지못하고 정각인 뎡일오후삼시에일반 회원은긴장한 태도로 동회관에 모히엇스나 경찰서의 간섭으로 인하야 예정과가티

식을거행 하지는못하더라도 여하한방식으로던지 이날을긔념하자하야 원근 각단데로부터온수십명의내빈과함의정숙한가운데서 십분간침묵을 직히여맘들은 가운데서 무한한의미를포함한긔렴식을 맛치고 삭라에나가 의미깁흔 담화로오찬을 마치고 도라와 여한친안동민중운동자간친회 (全安東民衆運動者懇親會)로자리를 밧구어지난해의상황보고와신년의

운동방침 을수립하고즐겁게놀나하엿스나 이역시 경북경찰부의 명령으로 금지를당하엿다는보고를 접한 일반회원은 날이 점흘도록헤여지지 아니하고삼삼오오로 회관주위를 배회하야 오후륙시에이르러 비로소 회는 금지되엿스나 무조건으로 호텐집수업다는의견으로당디

금남려관 두상에서만찬회를 개하려든바 당디경찰서에서는 돌연히고등계원 총출동으로대금거를 시작하야 각단데대표십팔인을 금속하야 하로밤을 유치장에서지내고익일오전구시에내빈으로온 예천오회(醴泉五五會) 장동호(張東浩)예천청년연맹(醴泉靑年聯盟)구자익(具滋益) 풍산소작회(豐山小作會)

은풍출장소 (豐山小作會殷豐出張所) 김영희(金永熙) 나병태(南炳台)남병인(南炳寅) 은풍구락부(殷豐俱樂部)김중규(金重圭)제씨를데일회로석방하고 동십일시에풍산소작회(豐山小作會) 리희승(李會昇)리용만(李用萬)신흥청년회 (新興靑年會) 윤준(劉準)풍서농민회 (豐西農民會) 김긔진(金基鎭)임하청년회 (臨河靑年會) 김의한(金義漢)임하청년회 (臨河靑年會) 김정식(金廷植)제씨를 데이회로 석방한후뎡오에 이르러화성회(火星會) 안상길(安相吉)류연건(柳淵建)안동로우회(安東勞友會)김진운(金震運) 정광단(正光團) 오정무(吳貞武)안동청년연맹(安東靑年聯盟) 김남수(金南洙)제씨를 모다석방하엿다더라(안동)

主人謀陷하고 경찰서구경

지난팔일 오후세시경에 포천군소흘면송우리 (抱川郡蘇屹面松隅里)시장에서 긔괴한누고자가 발생하얏다는데 이제그내용을 들은즉 경성부종로통삼정목(京城府鍾路通三丁目)일백삼십칠번디에 주소를둔 한문환(韓文煥)(三)이란자가 장에서갓(笠)을팔다가 오후세시쯤되야 그낫주인을뎡한 박(朴)모를 불러나는장간어되갓다오겟스니 갓을잡간보아달나하고가서한오분후에 와서자긔지갑에든돈십이원이업서졋다고 당디송우주재소에 고소한바 경관은그사실에 대단모호한뎜이잇슴으로 도로혀 한문환의행장을 조사하엿더니 과연 현금십이원이 드러나서 사실부고이엇든것이 판명되엿슴으로 방금한가를 인치하고 취됴중이라더라(포천)

生活難으로 飮毒自殺

영덕녕해면에서

경북영덕군 영해면대동(盈德郡寧海面大洞三四六) 리수(李壽)란사람은 지나간 십이월이십륙일오후 십이시경에 자긔방에서 독약을먹고 자살하엿다는대그원인은 지금부터 약십사년전에강원도(江原道)방면에잇다는리성녀(李姓女)라는녀자를자긔처로 정하고동거하든바 생활이머단곤난하야그커리청녀가별어서 근근생활하는중에 얼마전에리청녀의 본부가차저와서 다리고 가버렷슴으로 이후로는살길이망연하야 이세상을 비관하고자살하엿다더라(영덕)

求禮産米組合設立

일만오천원예산으로

전남구례군(全南求禮郡)은녕호량남(嶺湖兩南)의 중요한 지대로미곡(米穀)의 산액이 상당이풍부하야 매년팔만석의백미(白米)가수출되는고로 아즉까지일개의정미소(精米所)가업슴으로 구례산미가 품질이불량하야일반농업가(農業家)에막대한손해가되든바 구례군당국 에서는산미를 개량하야 농민의리익을증진할 목뎍으로 산미개량조합(産米改良組合)을창립하얏는데주식(株式)은 매주 십원으로하야총주 일천이백주 금액일만이천원으로하야 방금건축에 착수하야 불원간에 개업할터인데발동긔(發動機)는십오마력이며주주(株主)는 조선인이 사십사인에 칠백구십오주요 일본인이십일인에사백오주더라(구례)

鎭川强盜

현금삼십원강탈

지난십일 오전세시경에 충북진천군진천면 읍내리 일사삼번디(忠北鎭川郡鎭川面 邑內里一四三番地)리병화(李秉華)씨의 집에는 삼십내외쯤되여보이는 괴한한명이 목출모를 푹내려쓰고침입하야 약오촌가량되는 단도로 한참단잠에들어잇는 전긔리병화씨와그아들리윤섭(李允燮)씨를깨워 위협을하면서 금품을강청함으로 벼장속에 느허두엇던 잔전약간을준즉 이것은적으니 더내라함으로 할수업시지전 삼십여환을 내주엇더니바다들고 웃방으로 왓다갓다하면서 책상설합도 뒤지어보고신문장도 뒤적거리며 도라단이는동에 리병화씨의 손자라하지중상을식혀 방안에유혈이 낭자케하야노코 현금삼십여원만 강탈하여가지고 다라낫다는데 이와가튼 급보를접한 당지경찰서에서는 서원사동을 비상소집하야 범인수색에 대활동을 개시하엿스나 아직데포치못 하엿다더라(진천)

휘파람

▲저울이라하면의뭇히일긔가치웁다는면상이된다▲치위치위하지마는정말치위는우리나라에서는볼수가업다▲가차웁더라도간도방면이라야정말치웁다▲엇던때는한란계를보면령하삼십도!▲이러케치운날이들도시간이느러서삽사시간을공연히 기다리다가 도데집으로드러가는일이례사▲간도렬도는설경구경을하노라고갈지자거름을것는지▲병인년이되엿스니싸호랑이다뻐먹든세상으로아는지

滿洲踏査(13)

李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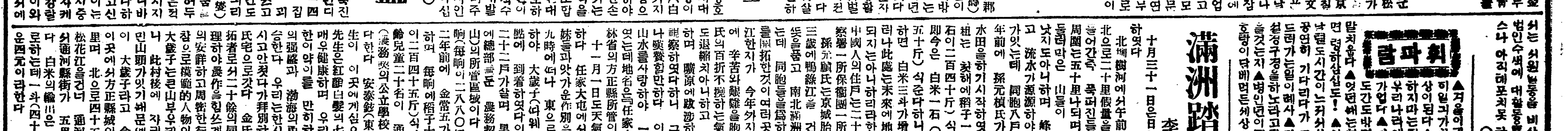
十月三十一日은日氣가 따뜻하엿다

北滿樹河에서午前九時에떠나北으로二十里假量을 山谷으로들어가々 뽕펴진들이되엿는데周圍는五十里나되며 屛帳가티둘려막은 山들이 멀지도안코낫지도아니하며 絲縷이奇麗하고 流水가源源하야매우 逸越가잇는데 同胞八戶가살며 三年前에 孫元楨氏가 開拓하고水田을하기시작하엿다는바 地則今은 白米一石(一石이四百五十斤) 식준다하니 初年에比하면 白米三斗가增加되엿다그러나此處는未來에地租가더增加되지는아니하리라한다 此處에中國人의住戶는二十戶이며 警察署一所保衛團一所가잇다

孫元楨氏는京城胎生으로二十三歲에鴨綠江을 건너서遠大한뜻을품고 南北滿洲를遍踏하얏는데 同胞들을爲하야 荒蕪地를開拓한것이여러곳이라하며渡江한지가 今年까지十二年동안에 辛苦와艱難을胞嘗한바 그氏의百折不撓하는氣槪는 조곰도退縮치아니하고 密林에出沒하며 曠原에跋涉하야 土地를視察하엿다하니 그壯志를누구나嘆賞할만하다 이곳의佳麗한山水를사랑하야 一夜를留宿하엿는데地名은『任家大屯』이오吉林省의方正縣所管이다

十一月一日도天氣가매우따뜻하다 任家大屯에서여러兄弟姉妹들과앗가운作別을하고 午前九時에떠나 東으로二十里를行하야 大嶽子(따웨즈)라는 地點에 到着하엿다이곳에 同胞二十二戶가살며 黑龍省通河縣에總部를둔 農務契 (契長金東山)의所管區域이다 水田은九十晌(每晌이二八八○坪)인데距今二年前에 金常五가開拓하엿다하며 每晌에稻子十五石 (每石이二百四十五斤)식난다하며 學齡兒童二十名이 通河蓬萊學校(農務契의公立學校)로留學을갓다한다 安泰鉉(東根의三寸)先生이 이곳에게십으로차자간즉先生은紅顔白髮의七十老翁으로매우健康하며 우리歷史에 關한이약이를 만히하며 高句麗의强盛과 渤海의勇敢을못내말슴한다 우리는한시동안이나모시고안젓다가拜別하고 金常五氏宅으로갓다 金氏는此地方開拓者로서二十餘의同胞家戶를管理하야農作을힘쓰게한다 金氏의安詳하고周密한行止와言辭가참으로模範的人物이라하겟다

大嶽子는큰山부우리라하는말이니 此村後에 자라목가티쑥내민山頭가잇기쌔문에 中國人들이 大嶽子라고 命名한것이다 이곳에서方正縣城이東으로五十里며 北으로四十五里를가면松花江을건너 通河縣인데江에서通河縣街가 五里假量이라한다 白米의輸出은 全혀方正街로하는데一斗(四十五斤)의價格은四元이라한다



羅州郡南平面 羅州郡金川面廣岩里 司法代書人 崔俊榮

羅州郡鳳凰面事務所 鄭在源 權炳國 洪起南 徐相昻 裵吉星 徐賣壽 鄭鳳午

羅州茶道 面長 洪光植 會計 洪涓植 書記 李崇起 潘興泰 金根喆 洪錫龜

羅州南平市場 金銀斗商店

羅州山浦靑年會

羅州郡山浦面 事務所職員一同

羅州南平 面長 丁甲鎭

羅州老安公立普通學校 金廣燮 洪啓昇 朴乙秉

羅州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羅州郡金川面月山里 金性洙

羅州老安面永平里 金熙國

羅州鳳凰面松峴里 洪承鳳

羅州榮山浦 農山繰綿工場

羅州榮山面富德里 劉基鐘

羅州潘南面新村里 金判實

羅州細枝面松堤里 羅台文

羅州公山公立普通學校 金東洙 丁奎滿 梁吉成

羅州山浦面梅城里 張泰善

羅州潘南 會計 鄭淳圭 書記 朴勝祚 書記 鄭棟錫 羅成文 羅龍均 金孟龍

羅州山浦面新道里 尹滔喆

羅州老安面龍山精米所 主 洪彦植 洪鐘喜

羅州羅新面大湖里 金大洪精米所